

은퇴설계를 위한

# 하나 행복가이드

국내 노인복지제도 현황 분석과 시사점  
장수리스크 확대와 대응방향 분석



## 하나금융그룹 행복디자인 대표전화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02) 2002 - 1147
	퇴직연금부	(02) 3788 - 5454
외환은행	퇴직연금실	(02) 729 - 0806
하나대투증권	연금사업부	(02) 3771 - 7173
하나생명	행복금융프라자	(02) 3709 - 7252



# Contents

이슈 포커스	국내 노인복지제도 현황 분석과 시사점 장수리스크 확대와 대응방향 분석	01
노후 재무설계	30대 박하나씨, 개인연금 확대와 더불어 중위험 투자전략 요구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표준투자형 전략이 유효 투자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구성 3월 주식시장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09
국내외 단신	점증하고 있는 고령자 노동력에 대한 대응 방향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 발표 장수위험을 감안한 은퇴준비 필요	14
상품브리프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인 10년 비과세 연금보험	18
행복한 노후디자인	은퇴설계 시 꼭 필요한 투자상식들	20
하나 뉴스	하나은행, 'Let's Go 브라질 오!필승 코리아 적금 2014' 출시 등	22
연금 통계		23

“

## 국내 노인복지제도 현황 분석과 시사점

”

수석연구원 백종호  
(jongho.baek@hanafn.com)

“국내 노인 대상 복지제도는 크게 기초노령연금 등의 소득 보장, 장기요양보험 등의 의료 보장, 노인 복지시설 등의 사회 서비스 보장으로 나뉘어 진다. 다양한 부문의 노인 복지체계는 어느 정도의 목적은 달성하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 체계의 비효율성, 이용자의 제한,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많은 노인들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향후 노인 복지체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바탕으로 노인의 자립기반 확보라는 발상의 전환 하에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부양의식 및 제도가 갖추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나 공공기관, 복지시설에서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복지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정(1981)으로 노인 사회보장 체계 구성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노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회보장 제도들이 확충되었다. 대표적으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에 도입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노인센터 등의 복지시설 등을 통해 노인들의 주거, 여가, 인권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부양자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을 크게 ①경제적 문제에 관한 대책은 소득보장, ②건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의료보장, ③사회적 문제에 관한 대책은 사회서비스 보장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알아보겠다.

### 기초노령연금 등의 다중 소득 보장 체계

우선 소득보장 관련 대책은 크게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외에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직접적 정책과 일자리 사업과 같은 고용증진 정책, 각종 세제감면 및 공공시설 할인 등과 같은 간접적 정책으로 구분 가능하다.

### 노인복지 서비스 발전과정

연도	내용
1981	노인복지법 제정
1988	국민연금 도입
1989	노인여가시설, 재가복지 서비스 실시
1997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2004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2008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시행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현재 소득수준이 83만원(단독)/132.8만원(부부) 이하인 노인은 96,800원(단독)/154,900원(부부)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계획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세부 실행안에 대하여는 미확정된 부분이 많아 향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다음으로 일하기 희망하는 노인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일자리 유형은 공익·교육·복지형의 공공분야와 시장·인력파견형의 민간분야로 구분되며, 구직 노인들은 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취업알선, 교육 및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의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등을 이용할 경우 무료이다(철도는 할인혜택).

이렇게 보면 노인들의 소득보장 지원체계는 다층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제도 운영에서

**주요 소득 보장 정책**

	대상	내용
국민연금 등	공무원, 군인, 교직원, 일반인	10/20년 이상 가입, 퇴직 후 지급
기초노령연금	노인소득 하위 7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지급
고용증진	구직 노인	취업알선센터,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세제감면 및 할인	65세 이상 노인	상속 및 소득세 공제, 철도, 공원 등 할인

| 자료 : 보건복지부

한계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층체계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적 연금 외에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퇴직 및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소득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외에 다양한 의료보장 제도**

국민건강보험 외에 대표적인 의료보장 제도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간호 등 수급자 15%분담), 시설급여(복지시설 입소, 수급자 20%분담), 특별현금급여(병원간병비 등)를 지급한다. 다음으로 노인들은 2년에 1회 이상 병원,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과 정밀 검진,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로 타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봄 서비스가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의료 보장 정책**

	대상	내용
국민건강보험	일반 노인	요양급여,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신청 후 장애등급이 1~3 등급 판정 노인)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 등
건강진단 및 안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노인	건강진단 및 안과 검진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안전확인, 보건 및 복지 연계, 생활교육

|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복지 서비스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의료 서비스의 고비용문제로 인하여 주요 이용자가 저소득층에 제한되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의 혜택들이 대부분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져, 정보가 제한된 경우에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 주거, 여가, 인권 등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사회서비스 보장은 복지시설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주거복지시설은 저소득 무주택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및 복지주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있고, 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 등이 있다.

이외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로 고통 받는 노인을 위하여 신고전화 운영,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여 학대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노인 중에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약 3개월 동안 학대피해 노인쉼터에 들어가 숙식 및 생활 지원, 심신 치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주요 사회서비스 보장 정책

	대상	내용
주거 보장	저소득 무주택 재가 노인	현금급여 +현물급여 (주택수당지급, 주택임대료 보조 또는 할인, 주택수리 및 개조에 대한 용자 등)
여가 보장	노인	현물급여 (경로당운영 혁신사업,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서비스(노인교실))
인권 보장	학대 노인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및 서비스 제공

| 자료 :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보장은 소득이나 의료보장에 비하여 아직까지는 미비한 부문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획일적인 서비스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노인들의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결국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로 지역과 노인의 소득수준, 주거 및 지식수준에 알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 노인 복지제도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지금까지 소득, 의료, 사회서비스 별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때 노인복지제도는 다소 낮은 감이 있지만, 부문별로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각 부문별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추진 중이거나 혹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저출산으로 인한 빠른 고령화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노인들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노인들의 빈곤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독거노인가구들은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사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세대간 부양역의 약화와 노령계층의 지속적인 증가는 앞으로 사적 영역보다는 정부가 책임을 지는 공적 영역을 통한 노인계층의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노인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가족부양을 대신할 사회 및 국가부양 의식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첫째로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실제 적용과 운영에 있어서 한계와 문제들을 들 수 있다. 일례로 기초노령연금은 관리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을 관장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과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비효율적

이라는 의견이 있어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관리라는 관점에서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에도 서비스의 주요 이용이 제한되어 주요 이용자는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는 반면, 혜택을 못 받는 노인들은 복지 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게 된다. 일례로 대표적인 소득보장 서비스인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 20만개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주요 참여계층은 저소득층에 제한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별, 소득별 세분화된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로 혜택이 전방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본고에서 언급한 노인복지제도는 대부분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노인 교육기관이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농어촌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도시-농촌간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에 대하여는 노인 눈높이에 맞춘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홍보 및 정보 전달체계에 대한 재편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체계는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인을 복지 수혜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사회를 이룬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의 고령사회 대책을 대폭 수정, 보완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자에 대한 관심 분야를 다양화하여 빈곤이나 질병 등에 국한되었던 정책 개발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령자가 다른 세대와 함께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노인 복지제도의 부문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소득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li> <li>· 차상위계층의 보호문제와 생계급여의 한계</li> <li>· 간접 소득보장제도의 보조 수준 취약</li> <li>· 일자리 공급량 부족, 노인 욕구와 사업내용간 불일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 다층체계의 소득보장체계를 구축</li> <li>· 노인가구의 지출 성향을 반영한 차등적 급여제도 마련</li> <li>·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세제감면의 폭 확대</li> <li>· 제도 확대 및 집행 효율성 향상, 근로내용 제고 필요</li> </ul>
의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접근성 차별, 도시집중</li> <li>· 노인건강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li> <li>· 치매나 중증질환 노인 부양가족 지원서비스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대</li> <li>· 노인건강진단의 수준개선, 질병발견 시 후속조치 강화</li> <li>· 지역사회중심의 노인가족지원 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li> </ul>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자 적합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li> <li>·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미비</li> <li>· 노인계층의 여가활용에 대한 인식과 준비 미흡</li> <li>· 여가복지시설 부족, 접근도 낮음</li> <li>· 학대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보호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유형의 고령자 적합주택 개발</li> <li>·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수당, 주택 바우처 제도</li> <li>· 문화 사업 프로그램의 다양화</li> <li>·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li> <li>· 보다 적극적인 노인인권보호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li> </ul>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장수리스크 확대와 대응방향 분석

”

수석연구원 송재만  
(jmsong@hanafn.com)

“장수리스크는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장수리스크는 개인·정부·금융회사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그 동안 경제 주체들의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인들은 노후 자산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부족했고, 금융회사들은 상품판매에만 몰입한 나머지 장수리스크에 따른 손실은 등한시하였다. 정부 역시 장수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 주체들은 장수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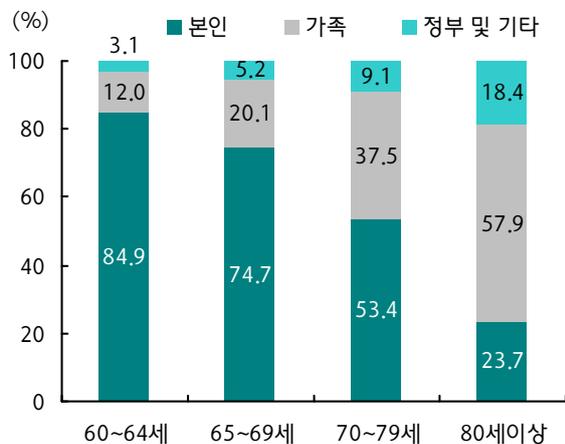


###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장수리스크 확대

최

근 의료기술 발달 및 식습관 변화 등으로 개인의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은퇴 후 소득 등 노후 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소득 중 본인 부담이 높은 반면, 70대~80대 이상으로 갈수록 본인 부담은 줄어들고 가족과 정부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들은 객관적인 기대수명 수치보다 본인의 기대수명을 다소 낮게 예상하고 있어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대한 대비가 부실해 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CRIS(2005)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영국에서 개인들은 객관적인 기대수명보다도 예상 기대수명을 5.3년 적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차원의 장수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도 개인들의 기대수명에 대한 과소예측(LIMRA, 2009)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개인들의 기대수명 과소예측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들의 금융기관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연령별 소득 구성(201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3

하고 있다. 한편 UN 조사에 따르면 2010~2015년생들의 기대수명은 한국 81세, 영국 80세, 미국 78세(전세계 평균 70세)로 나타났으나 2050~2055생년들은 한국 89세, 영국 86세, 미국 84(전세계 평균 77세)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인구구성비에서도 향후 65세 이상 특히 8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장수리스크 확대는 더 이상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등 전세계적인 공통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개인, 정부, 금융회사차원에서의 장수리스크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국내외 장수리스크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 정부, 금융회사별로 나눠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경제 주체별 장수리스크 대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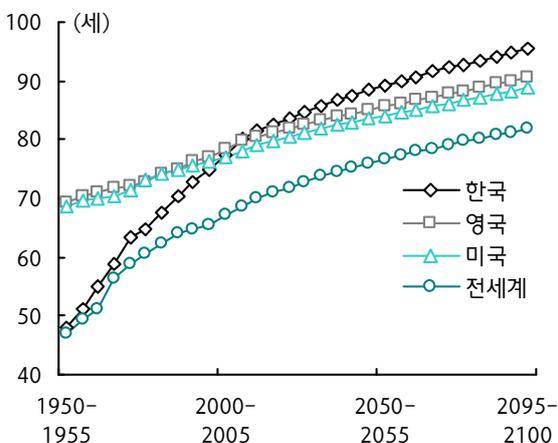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장수리스크는 예상을 초과하는 수명 증가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위험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 진행 속도는 빨라진 반면, 저금리 및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저조한 투자실적 등으로 은퇴자산 축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즉 과거부터 높은

투자 수익률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대비하려고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조한 수익률과 경기부진 지속으로 노후 자산 부족 문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노후 준비 부족과 함께 장수리스크의 확대는 개인·금융회사·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고령자들의 빈곤층 전략, 금융회사 파산, 정부부채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개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장수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수명이 늘어난 개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비 등의 지출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최근 개인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현재 자산을 증대시키는데 관심이 높아졌으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및 상품 등 개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이며,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운용실적도 좋지 못해 개인차원에서의 장수리스크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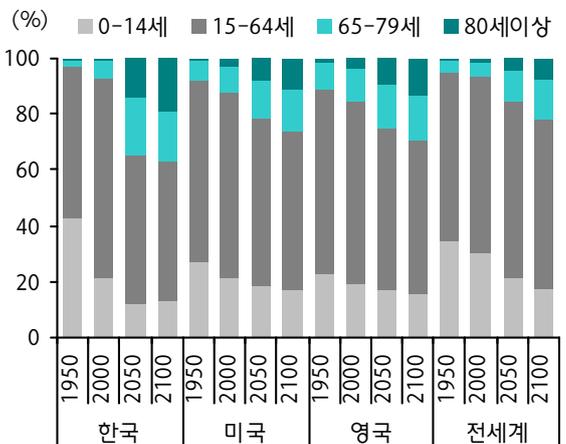
다음으로 금융회사 특히 보험사의 경우,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장수리스크 확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

### 출생 연도별 기대수명 추이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Revision 2012" |

### 인구구성비 변화 전망



|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Revision 2012" |

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기대수명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과거 낮은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판매한 종신형 개인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장수리스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2018년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시행되면 결산 시점의 사망률·시장금리 등을 반영하여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됨에 따라 보험사의 장수리스크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내 보험사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측면에서는 개인들의 기대수명 증가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증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재정지출 확대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공적연금 지출 확대에 따른 연금금의 부실 문제로 나타나 세대간 연금 수급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 확대 및 장수리스크를 헤지할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국외 금융회사들은 장수채권을 활용해 장수리스크 대비

국내에서는 아직 장수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미진한 반면 해외에서는 장수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고 금융회사와 정부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수립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은 국내보다 공적·사적연금의 역사가 길고 상품 및 서비스가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장수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장수채권 발행을 시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12월 장수채권을 세계 최초로 발행에 성공한 스위스리 사례이다. 물론 과거에도 BNP Paribas, 영국정부,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장수채권 발행을 시도했으나 당시에는 수요 부족 문제, 짧은 만기, 90세 이상 장수위험 제한 등의 이유로 발행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전보다 장수채권에 대한 관심 증대와 새로운 장기자금 확보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식인 장수채권의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영국정부도 연금금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장수채권 발행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 장수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개인·정부·금융회사의 대응 마련 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부·금융회사차원의 장수리스크가 각각 존재하고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장수리스크 확대는 국내만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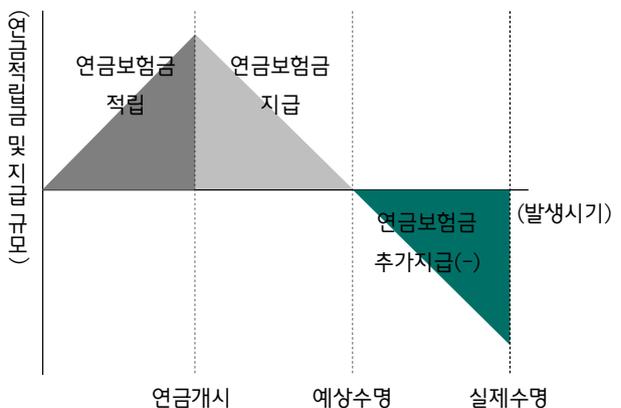
### 기대수명 추이 비교

(단위 : 세)

연령별	2000년		2010년		2012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	72.25	79.60	77.20	84.07	77.95	84.64
10	62.94	70.25	67.60	74.39	68.31	74.96
20	53.19	60.41	57.76	64.49	58.45	65.05
30	43.63	50.64	48.11	54.74	48.76	55.24
40	34.31	40.98	38.58	45.05	39.20	45.52
50	25.66	31.53	29.51	35.49	30.05	35.94
60	17.82	22.46	21.10	26.16	21.55	26.55
70	11.22	14.22	13.49	17.31	13.77	17.58
80	6.47	7.89	7.57	9.83	7.69	9.94

자료 : 통계청, “간이생명표”

### 종신형 개인연금보험 구조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3.10

가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경제 주체별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만 향후 장수리스크는 개인들의 노후 자산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금융회사들의 예측 능력 향상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수리스크 헤지 방법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시 장수리스크는 대비가 가능한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렇지만 장수리스크는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한 선제적 대처 없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수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 정부 그리고 금융회사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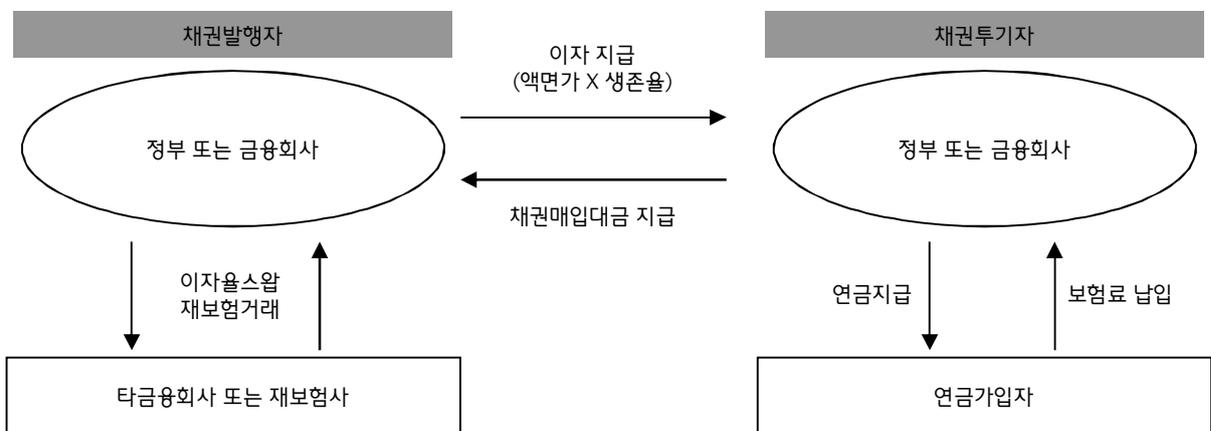
우선 개인차원에서는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들은 사적연금 가입을 통한 은퇴자산 확보로 노후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 동안 자식 교육 및 결혼 등으로 노후 자산 축적이 부족했던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보유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에서는 자신의 기대수명을 과소예측 하지 말고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은퇴 후에도 철저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등 미래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확대의 대책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앞서 살펴봤던 스위스리가 발행하고 영국정부가 도입을 고려중인 '장수채권' 부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에서 발행될 장수채권은 2016년 발행될 예정이며, 공공부문(정부 등)의 직접 또는 민간(재보험사 등)부문을 통해 발행될 예정이다. 또한 발행한 장수채권을 연금지급자(연기금, 보험사 등)가 투자하고 채권발행자(정부, 재보험사 등)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향후 장수채권이 도입될 경우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 능력이 제고될 것이며, 장수리스크가 확대되는 최근의 추세로 보아 장수채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은퇴 예정자 및 고령자 등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장수리스크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 전략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장수리스크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리스크를 책임준비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부가 추진중인 장수채권 투자 및 해외 금융회사들의 장수리스크 헤지 상품들을 모니터링 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 장수채권 구조 예시



| 자료 : 금융위원회,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 2013 |

## 30대 박하나씨, 개인연금 확대와 더불어 중위험 투자전략 요구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30대를 대표하는 박하나씨(30세)는 60세에 은퇴하고 생명표에 따라 85세까지 생존하며, 은퇴 후 매월 약 300만원<sup>1)</sup>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하나씨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라 은퇴 후 국민연금을 월 62만원씩 수령하며, 퇴직연금은 보험연구원에서 추정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인 25%, 12.5%를 감안하여 월 31만원을 수령한다. 또한 노후 준비를 위해 최근 개인연금인 연금신탁에 가입했으며, 납입액은 각 연령대별 저축액만큼이고, 연금신탁의 수익률은 최근 3년간 은행 개인연금신탁 평균 수익률인 3.57%로 가정했다. 60세까지 납입할 경우 박하나씨는 매월 34만원을 수령한다.

한편 박하나씨는 현재 1억 3천원 대의 순실물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은퇴 후 주택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60세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1억원 당 약

23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 된다고 가정할 경우 박하나씨는 매월 2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신탁, 주택연금을 필요 생활비에서 차감하면 은퇴 후 월 부족자금은 178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85세까지 필요한 월 부족자금 총액의 현재가치를 합하면 약 3억 1,600만원이 된다. 현재 시점에서 순금융자산 5,407만원을 운용할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약 6.06%의 수익률이 필요하며, 이는 표준투자형(중위험) 전략의 목표 수익률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30대 평균인 박하나씨는 저축액만큼 납입하는 개인연금의 확대와 동시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자산 투자전략이 이루어진다면 원활한 노후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2013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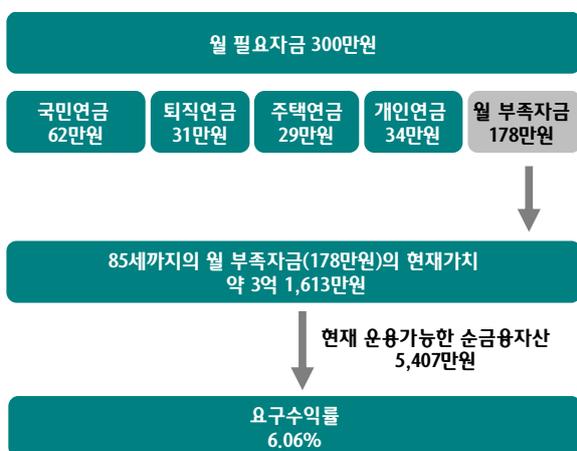
(단위 : 만원)

연령대	자산액	순금융자산	순실물자산	가처분소득	저축액
30세 미만	8,479	3,925	3,162	2,643	90
30~39세	23,028	5,407	12,762	3,924	133
40~49세	33,115	5,027	21,224	4,326	147
50~59세	42,479	5,485	29,056	4,491	153
60세 이상	32,587	3,421	25,055	2,167	74
전체 평균	32,557	4,733	22,004	3,645	124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노후생활비를 바탕으로 추정

### 박하나씨의 노후준비를 위한 요구수익률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표준투자형 전략이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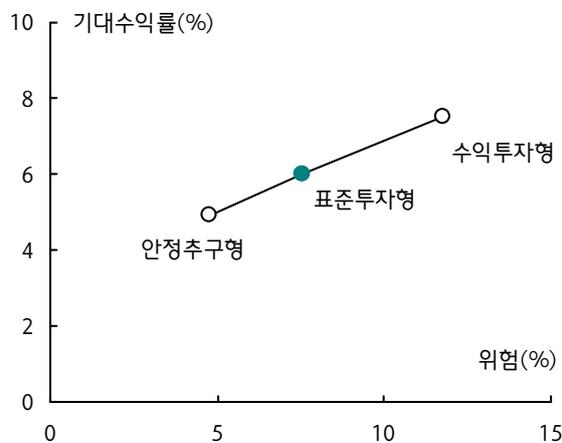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성향은 수익투자형, 표준투자형, 안정추구형 등으로 분류<sup>1)</sup>된다. 박하나씨가 현 상태로 노후 준비를 유지해나갈 경우 월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수익률은 6.06%로 계산되었는데 앞선 투자성향을 고려하면 박하나씨는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3월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 투자비중은 국내주식 12.0%, 선진국주식 12.5%, 이머징주식 3.0%, 국내채권 12.5%, 해외채권 10.0%, 대안형자산 35.0%, 현금성자산 15.0%로 설정하였다. 그동안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선진국 중심이었으나, 이머징 시장 중 정책 변화에 따른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해 선진국 주식과 국내 주식 비중을 각각 2.5%, 0.5% 축소하였으며,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및 시장의 변동성 확대국면에 대비하여 대안형자산의 비중을 주식의 비중보다 높게 유지한다.

표준투자형 전략은 국내외 주식 및 채권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운영되는데, 우선 글로벌 증시의 경우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진국 중심의 투자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는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가치주와 성장주 중심의 분산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머징 시장 중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입이 유효해 보인다. 국내외 채권의 경우 금리의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바 금리에 민감한 하이일드 채권의 상대적 우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전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변동성 장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롱숏전략을 활용하는 중위험형 상품 및 ELS와 같은 구조화 상품 등의 대안형 투자 비중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투자성향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이야기

1) 기존 5개의 투자유형(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에서 3개 유형으로 개편

### 투자성향별 자산배분 비중

(단위 : %)

자산구분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투자형
국내주식	10.0	12.0(-0.5)	27.5(-2.5)
선진국주식	-	12.5(-2.5)	32.5
이머징주식	-	3.0(+3.0)	5.0(+5.0)
국내채권	22.5	12.5	5.0
해외채권	5.0	10.0	7.5
대안형	35.0	35.0	19.5
현금성	27.5	15.0	3.0(-2.5)

자료 : 하나대투증권 투자이야기

## 투자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구성

3월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는 전월 대비 국내 및 선진국 주식 비중을 다소 줄이고 이머징 주식을 편입한다. 포트폴리오의 12.0%를 투자하는 국내주식은 단기 증시 흐름보다 기업의 장기 가치에 주목하여 투자하는 신영마라톤(주식) A, 유명 투자자문사들의 자문 내용을 랩자산 운용에 활용하는 하나자문형랩(Sytle I-M:기본) 등에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15.5%를 투자하는 해외주식은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되는 선진국 소비 관련 업종에 투자하는 하이생활속의선진대표기업(주식) A에 12.5% , 홍콩에 상장된 중국본토 기업 중 중국의 대표 우량기업에 장기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하나 중국1등주 랩/신탁에 3.0%를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17.5%를 투자하는 국내외채권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공공물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잠재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혜택을 기

대할 수 있는 물가연동국고채(13-04)에 10.0%, 금리 및 크레딧 국면에 따라 고수익이 기대되는 다양한 채권 및 미국 시니어론에 분산 투자하는 하나UBS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 A에 7.5%를 투자한다.

포트폴리오의 7.5%를 투자하는 중위험형 상품은 선진국 주식시장에 대한 롱숏전략을 통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UBS글로벌롱숏자 A에 투자하며, 10.0%를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배분전략을 사용하는 한국밸류10년투자1(채권혼합) C에 투자하며, 17.5%를 투자하는 구조화상품은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양방향 원금보장형 ELS에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UBS 신종MMF(S-26호) C에 15.0%를 투자한다. 한편 박하나씨는 연금신탁에 가입하였으며, 매년 133만원(40대 147만원, 50대 153만원)을 납입한다.

###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

구분	자산	유형	상품명	운용사/자문사	비중
금융자산	국내주식	가치(배당)형	신영마라톤(주식) A	신영	6.0%
		가치(배당)형	하나자문형랩(Sytle I-M:기본)	V&S	6.0%
	해외주식	선진국	하이생활속의선진대표기업(주식) A	하이	12.5%
		이머징	하나 중국1등주 랩/신탁	하나대투	3.0%
포트폴리	채권	국내	물가연동국고채(13-04)	-	12.5%
		해외	하나UBS글로벌스마트리턴자(채권혼합) A	하나 UBS	10.0%
	대안형	중위험형	하나UBS글로벌롱숏자 A	하나UBS	7.5%
연금성	합계	혼합형	한국밸류10년투자1(채권혼합) C	한국밸류	10.0%
		구조화	양방향 원금보장형	하나대투	17.5%
		-	하나UBS 신종MMF(S-26호) C	하나UBS	15.0%
연금신탁	매년 133만원 납입(40대에는 147만원, 50대부터는 153만원 납입)				100%

주 : 1)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표준투자형 상품 포트폴리오를 의미  
 2) 유형별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위 자산배분의 정확성 및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바람  
 자료 : 하나대투증권

## 3월 주식시장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미국 FOMC가 추가로 양적완화를 축소하면서 2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었다. 또한 이머징시장은 아르헨티나의 급격한 통화 절하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 및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크지 않았으나, 주식시장은 상당 폭 조정을 보였다. 이는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가 모두 흑자를 보이는 등 신흥국 중에서 차별화된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기업에도 일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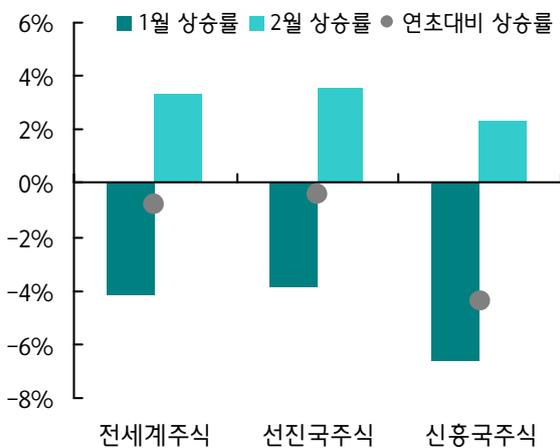
3월 국내 주식시장은 국내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의 마무리 국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를 전후로 정책 기대감 확산, 국내 증시에 대한 위험선호도 개선 및 저평가에 따른 가격메리트 등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또한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흑자 등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도 낮아 1,900p 초반에서 저가매수도 바람직해 보인다.

### 금리는 박스권 내 등락이 지속될 전망

최근 국내 경기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엔저 현상 완화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 명분은 다소 약해졌다. 이에 지난 2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되었다. 한국은행은 동결 후 완만한 대내외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자세를 유지했다. 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신흥국 문제, 공사채 발행 감소에 따른 수급 우위, 3월 한은총재 임기만료 등을 앞두고 금리인하 논쟁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가 회복 기조에 있는 만큼 금리는 상하단이 다소 제한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아르헨티나발 신흥국 우려와 1월 FOMC 이후 달러강세 등의 부정적 영향은 감소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정치적 리스크 등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과거 대비 매력도는 낮아질 수 있으나 하이일드 채권의 상대적 우위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 글로벌 주식 상승률 비교



| 자료 : 하나대투증권

### 크레딧 스프레드 및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



| 주 : 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10년-국고채 3년  
크레딧스프레드 : 회사채AA 3년 - 국고채 3년  
자료 : 민평 3사, 하나대투증권

### 해외시장은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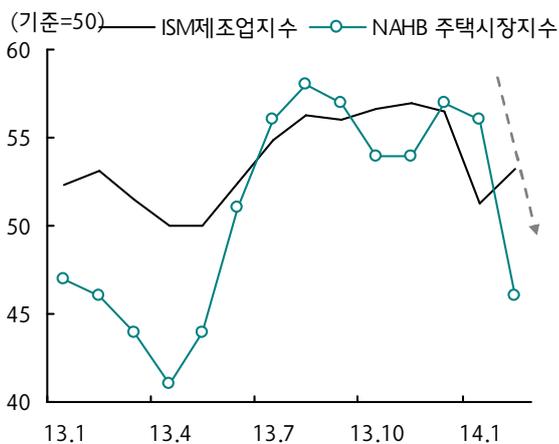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은 한파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유효하나, 단기적으로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양적완화 축소를 논할 예정인 3월 FOMC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알 수는 없으나,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를 고려할 때 기존의 양적완화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은 그리스 구제금융 등 남유럽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맡고 있는 ECB의 완화적 통화 스탠스를 감안 시, 역내 회복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4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일본의 경우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소비심리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아베노믹스의 실익이 점차 희석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그림자금융과 더불어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다만 최근 규제개혁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이후 도시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도는 최근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 또한 안정세를 보이며 이머징 국가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5월 총선을 앞두고 군소정당들의 구축 움직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높은 외환보유고가 이어지고 있으나, 월드컵 개최를 위한 과잉 투자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3월 미국 FOMC 이후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리츠시장은 금리 안정 및 양호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중장기 기대감 유효

리츠 가격은 고용 개선 등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공실율 하락 및 렌트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펀더멘털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Fed의 테이퍼링 개시 이후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부담도 완화되고 있어 중장기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주요 경제지표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요 금리 및 리츠 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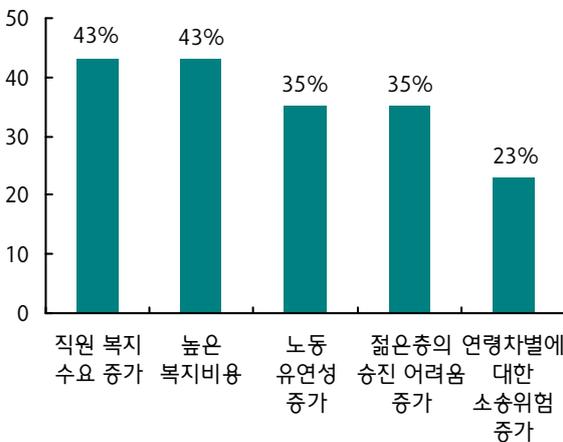
### 점증하고 있는 고령자 노동력에 대한 대응 방향

“고령 노동력의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의 관리, 직원의 탄력적 운용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

최근 유럽의 노동 인력은 낮은 출산율,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하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2년 경제활동 인구가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향후 4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 또한 고령자 직원과 노동 관행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과 Towers Watson은 유럽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노동 인력의 고령화라는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과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노동력 고령화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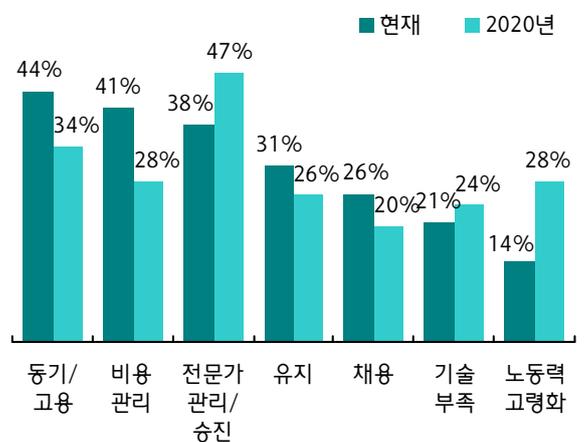


| 주 : 2개 항목 선택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owers Watson

노동 인력의 빠른 고령화와 진행과 더불어 경영자들은 2020년까지 직원들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0세 이상 직원의 비율에 대해 22%는 매우 의미 있는 비율로 증가하고, 49%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노동 인력의 고령화는 향후 경영에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43%는 직원들의 의료, 은퇴 등 복지에 대한 수요와 복지관련 비용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35%는 노동의 유연성이 제고되고, 젊은 직원들의 승진기회가 감소하여 승진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23%는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화에 대한 소송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경영자로서 인적자원 관리측면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로 현재는 동기부여 및 고용이 44%로 가장 높은 관심사였다. 그리고 보상 및 복지에 따르는 비용관리가 41%, 전문가 관리 및 승진이 38%로 중요 이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향후 2020년까지는 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전문가 관리 및 승진이 47%로 가장 중요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전문가 관리는 혁신 및 확장과 더불어 기업의 최우선 관심사로 자

#### 경영자로 인사관리에서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



| 주 : 3개 항목 선택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owers Watson

리매김되고, 글로벌 경쟁력 및 기술과 함께 기업의 주요한 변화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직원의 고령화에 대한 이슈의 중요성이 현재 14%에서 28%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직원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건강한 노동력, 노동력의 다양화, 기술부족 등이 현재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경영자들은 2020년까지 노동력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56%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용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들이 향후 근로와 삶의 질 조화 등을 위해 탄력적인 근무를 원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영자들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직원복지를 변경(50%)할 것이고, 48%는 직원들에게 자신들의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다 더 제공할 생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46%는 고령 직원의 기술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변화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32%가 근로 시간이나 책임이 줄어든 고령 직원이 기업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함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느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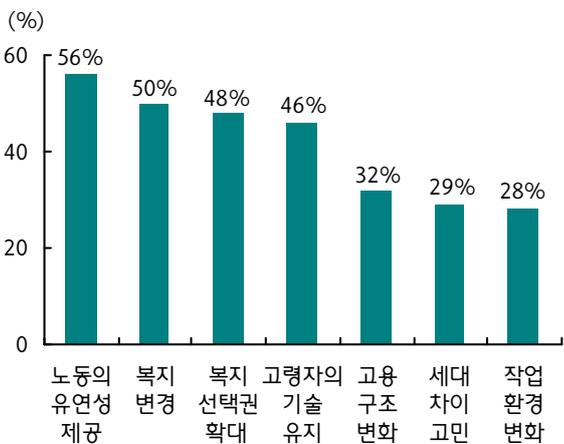
수 있도록 고용구조에 변화를 줄 생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경영자들의 대응 노력과 더불어 직원들의 관심사도 임금에서 라이프스타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경영자 대상의 조사이지만 현재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직업 안정성(64%)는 향후 29%까지 감소하는 반면 일과 삶의 조화, 고용의 탄력성, 은퇴대비 저축 등 라이프스타일관련 이슈가 중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직원들의 건강이 중요 이슈화 되고, 건강관련 복지가 직원들에게 점차 중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의 경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상에서 살펴본 선진국의 추이와 대응 과제를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노동 인력이 고령화되고,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고령 인력을 유지하고, 그들로부터 경험, 지식, 전문기술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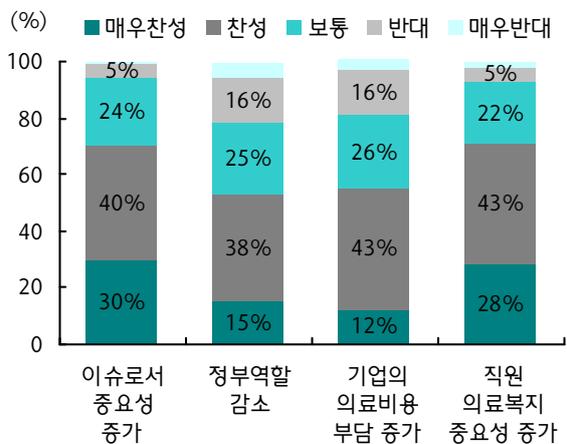
(“Is 75 the New 65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and Towers Watson, 2014.2)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대응 계획(2020년까지)**



주 : 해당항목 모두 선택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owers Watson

**경영자의 의료비용관련 이슈 견해 (2020년까지)**



자료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Towers Watson

“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 발표

“신규 계약자에 한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존 실효상태인 가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

금융당국은 최근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 동안 연금저축은 가입자들이 재정악화에 따른 계약실효, 다른 상품으로의 이전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계약유지율이 크게 낮은 현상을 보였다. 경과년도별 연금저축 평균 계약유지율은 1년차에 95.5%이던 것이 10년차에는 52.4%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금저축보험 등 연금저축 가입자들이 계약을 장기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자 편의성을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유예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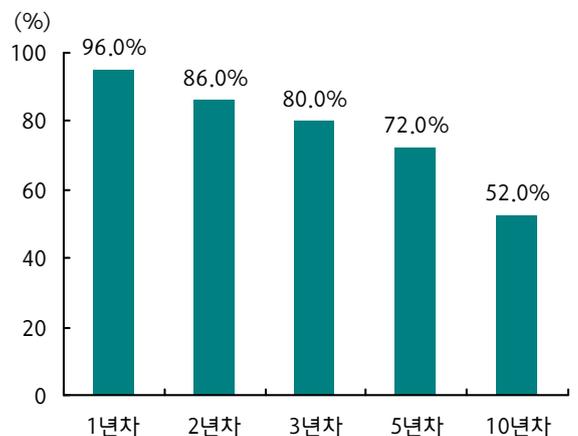
먼저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의 도입이다. 연금저축은 그 동안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하여 보험료를 2회 미납시 연금저축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 계약이 실효될 경우 가입자는 이전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15%의 기타소득세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컸다. 따라서 이번 개선에서는 가입자들이 납입유예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여 계약을 장기보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입유예는 계약체결후 일정기간(1~3년) 이상 경과후 가능하고, 유예기간은 1회에 1년 유예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예횟수는 전체 납입기간중 3~5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전체 납입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실효된

계약의 부활 간소화이다.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납 보험료와 경과이자를 전액 납입해야 했다. 실효후 일시에 납입해야 할 부담 때문에 중도에 다수 계약자가 부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금번 개선에서는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약이전 원활화 방안의 시행이다. 그 동안 수익률 차이 등으로 계약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에 허용되었지만, 계약 실효상태에서의 이전은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행안에서는 실효계약도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은 계약자의 유지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이번 시행안이 2014년 4월 1일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의 상품에만 적용되도록 한정하고 있어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실익이 없다. 2011년 9월 실효상태인 계약이 52.1만건인 점을 감안 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하여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 금융위 및 금감원, 2014.2)

경과년도별 연금저축 계약 유지율



| 자료 : 금융위원회



### 장수위험을 감안한 은퇴준비 필요



“기대수명에 기초한 은퇴기간보다 기대여명을 토대로 장수위험을 고려할 경우의 은퇴기간이 실제로 더 길어질 수 있음”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비한 장수위험의 산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14일 201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대여명을 활용한 장수리스크지수 산정과 비교”<sup>1)</sup> 주제가 발표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은퇴기간을 예측하는 장수리스크 지수를 기대여명<sup>2)</sup>을 활용하여 성·연령별로 제시하여 국민들이 은퇴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기대수명은 고령자동계에 따르면 2000년 76세이던 것이 2010년에는 80.8세, 2020년에는 82.6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주요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기대여명을 기초로 산정된 기대여명 성장률은 2060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의 성장률이 여자보다 높게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남자의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낮아 증가 여지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수위험은 예상은퇴기간대비 비예상은퇴기간으로 계산되는데 사회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다.

- 1) 오진호, “기대여명(Residual Expectation of Life)을 활용한 장수리스크지수 산정과 비교,” 2014.2
- 2) 기대여명은 현재 특정연령대 사람이 향후 얼마나 더 생존할 것인가 기대되는 연수를 뜻하는 것으로, 연령별·성별 사망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0세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인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과는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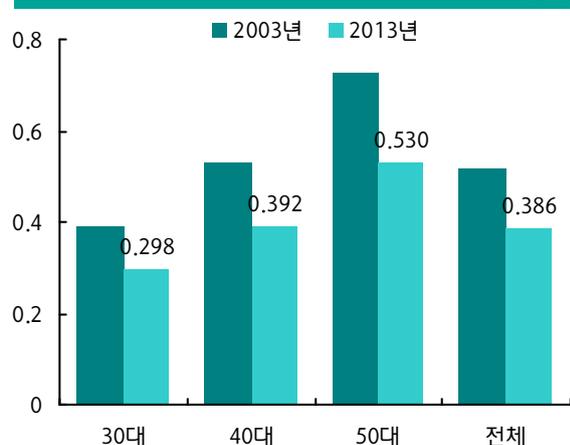
2003년 0.517이던 것이 2013년에는 0.386으로 낮아졌다. 반면 은퇴기간은 2003년 33.20년에서 2013년에는 34.25년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성별 장수위험은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위험 감소 측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30대로 낮아질수록 장수위험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장수위험이 감소하는 것은 장래 우리나라 기대여명의 증가 폭이 과거에 비해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평균수명에 근거하여 은퇴준비를 할 경우 앞에서 추산된 장수위험으로 인하여 실제로 필요한 은퇴자금에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장수위험을 고려할 경우 30대에서 50대의 사회구성원들은 예상하는 은퇴기간보다 8~11년정도 실제 은퇴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구성원들은 은퇴준비시 장수위험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은퇴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기대수명으로 산출한 은퇴기간보다 기대여명에 기초하여 장수위험을 고려한 은퇴기간이 실제로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여명을 활용한 장수리스크지수 산정과 비교”, 201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14.2)

### 연령대별 장수위험 추이



주 : 연령대별 평균(50대는 58년생, 63년생)  
자료 : 전계서

## 10년 비과세 연금보험 대표적인 세제혜택 상품

###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향유

연금보험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기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은퇴상품이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연금보험은 크게 세제적격 연금보험인 연금저축보험과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인 10년 비과세 연금보험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나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소득세를 내는 상품이다. 현재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향후 세액공제로 개편 예정)가 가능하며 최근 新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추가된 바 있다. 보험사 외에도 은행, 증권사에서 동일한 세제적격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반면에 10년 비과세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10년간 유지시 연금을 수령 시점에서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가능한 상품

이다. 단 지난 해 세법 개정으로 2억 이상 일시납 연금 상품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지 않는다. 한편 10년 비과세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 변액연금 및 자산연계형연금 보험으로 구분된다. 일반연금보험은 다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확정금리로 적립하는 금리확정형과 변동금리로 적립하는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상품이며,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에 연계한 후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상품이다.

### 다양한 옵션이 추가된 상품 출시 증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본격화, 정부의 사적연금시장 확대 정책 등과 맞물려 수령 방법과 수령 목적 등이 다양화된 연금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연금보험은 중도 해약 시 손해가 발생하는 보험상품 인만큼 가입자는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 비과세 연금보험의 주요 유형

	일반연금	변액연금	자산연계형 연금
보험료 적립방식	확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이자 부리	주식, 채권 등 펀드 투자	주가지수연계, 채권금리, 금리스왑 등 특정자산연계
목표 고객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기대하는 가입자	투자위험을 감안하여 향후 높은 연금액을 기대하는 가입자	변액연금의 투자리스크는 기피하되 일반 연금보다 추가수익을 기대하는 가입자
특징	- 금리확정형,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금리연동형, 금리 상승시에는 초과 연금액을 지급받으나, 금리 하락시에는 예상 보다 낮은 연금액 수령	-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일반연금보험 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고려	- 연계자산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변액연금 보험보다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 존재

| 자료 : 금융감독원

# 무배당 행복디자인연금보험



오래될수록 보너스가 쌓여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무배당 행복디자인연금보험은

- 장기유지보너스 적립**  
- 오래될수록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액에 추가로 적립하여 더 많은 연금 지급
- 보험료 할인 혜택**  
- 고객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통한 실질 수익률 향상
- 은퇴 후 계획에 따른 맞춤형 은퇴설계 가능**  
- 종신형(개인형/부부형, 정액형/계좌형/활동기집중형, 10년/20년/100세 보증), 확정형, 상속형 등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로 연금 수령  
- 종신형의 활동기집중형 선택 시 집중지급기간(5년, 10년) 동안 지급배수(3배, 5배)만큼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  
- 노후자유자금 선택 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서 최대 50%까지 일시금 수령 가능
-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 실세금리 및 최저보증이율 적용으로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  
-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복리 부리 (2014년 1월 연재 연복리 4.0%)  
- 금리하락 시 최저보증이율(가입후 10년 내 2.5%, 10년 후 2.0%) 적용한 연금 지급
- “0”세부터 가입 가능(2형(무사망급부형))**  
- 자녀를 위한 설계 가능
- 경제사정을 고려한 유연한 자금설계**  
- 여유자금의 추가납입,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및 보험료납입일시종지 제도 등을 통해 자유로운 자금운용 가능
- 피보험자 변경 가능**  
- 연금 전환 시 피보험자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변경하여 계약승계 효과 제공

### ▶ 연금연액예시

1종(기본형) ※기준: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전가납, 월납 보험료 100만원, 2014년 1월 현재 공시이율 4.00%

종신연금형 (20년 보증, 정액형)	개인	연 1,891 만원	
	부부	연 1,677 만원	
종신연금형 (20년보증, 활동기집중형)	개인(5배)	5년 이내	연 4,730 만원
		5년 이후	연 946 만원
	부부(5배)	5년 이내	연 4,447 만원
		5년 이후	연 889 만원
확정연금형	20년 확정	연 2,480 만원 × 20년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1차년도 연 1,290만원 / 2차년도 이후 연 1,350만원	사망시 일시금: 33,935만원	

2형(무사망급부형) ※기준: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전가납, 월납 보험료 100만원, 2014년 1월 현재 공시이율 4.00%

종신연금형 (20년 보증, 정액형)	개인	연 1,893 만원	
	부부	연 1,680 만원	
종신연금형 (20년보증, 활동기집중형)	개인(5배)	5년 이내	연 4,736 만원
		5년 이후	연 947 만원
	부부(5배)	5년 이내	연 4,453 만원
		5년 이후	연 890 만원
확정연금형	20년 확정	연 2,483 만원 × 20년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1차년도 연 1,291만원 / 2차년도 이후 연 1,352만원	사망시 일시금: 33,980만원	

주) 1. 상기 연금예시표는 현재 공시이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또한 상기 연금연액은 연금개시시점까지 발생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노후자유자금을 선채하지 않았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또한 활동기집중형의 경우 집중지급기간 5년 및 지급배수 5배를 선택한 금액을 예시한 것입니다.  
2. 종신연금(20년 보증형)의 보증지급기간과 확정연금형의 확정지급기간 안에 사망하는 각각 보증지급기간과 확정지급기간 중 잔여기간동안의 생존연금액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선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4.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선택한 연금유형을 중도에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5.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부부연금형은 주보험자가 주보험대상자 및 종보험자(배우)가 사망한 경우 모두 사망 종료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더 이상 유효를 갖지 아니합니다.  
6. 종신연금(활동기집중형(20년보증)), 확정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은 계약자가 연금지급 개시 이전에 연금형태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사



CC브랜딩-140128-80 준법감시인 심의필 하행 2014-048호 / 제작일 2014. 01. 22

판매사



판매사 등록번호 : 2003091002

## 은퇴설계 시 꼭 필요한 투자상식들

### 투자의 기본은 장기·분산투자

재테크에서는 “복리” 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다. 복리란,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투자원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인 “단리” 와 다르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복리에서는 원금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복리 수익은 투자원금, 이자, 시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원금이 클수록, 이자가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투자 심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장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장기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고 복리효과가 커지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이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것이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들은 주식형펀드의 장기투자기간을 5~7년으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 투자기간은 1~2년에 그치는 것으로 나왔다. 전문가들은 복리의 마술을 실현하려면 5~10년 장기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산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자산 또는 특정 기간에 집중 투자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여러 가지 자산들에 분산 투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원금손실 위험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산대상은 자산 뿐만 아니라 특정 금융상품 내에서도 스타일별로 여러 개의 국내주식형 펀드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또한 각 펀드 내에서도 다양한 개별 종목들에 투자하여 개별종목 위험을 줄이는 분산 효과가 나타나며 적립식 투자를 통해 기간 분산 효과도 볼 수 있다.

### 3가지 투자법칙

"72법칙" 은 노벨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법칙으로 원금이 두 배로 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일종의 공식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돈을 연 3%의 금리를 가지고 2,000만원을 만들려면 72 나누기 3을 하면 24가 나온다. 즉, 연 3%의 금리로 24년을 투자하면 원금 1,000만원을 2,0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동안 원금을 두 배로 만들려면 몇 %의 복리상품에 가입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다. 5년 안에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만들고 싶다면, 72 나누기 5를 하면 연 14.4%의 수익률을 내야 한다. 72법칙은 복잡한 암산 능력이나 계산기가 없어도 간단히 내 자산이 언제 두 배가 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법칙은 돈을 불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한 이자나 수익금을 재투자하고 장기 투자하여 복리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안전자산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 위험 자산에 대한 적절한 투자비중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100-나이" 법칙이다. 이는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서 나온 숫자만큼 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자산에 배분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이가 40세라면 100에서 40을 뺀 값인 60%를 원금손실 위험과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자산에 그리고, 나머지 40%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면 된다. 이 법칙에 의하면 젊을수록 투자자산의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어가면 투자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젊을수록 앞으로 생애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고 노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만회할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 이후 60~70세 동안에도 위험자산에 대한 일정비중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50 = +100" 법칙은 투자자산의 위험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였다고 가정하자.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여 펀드의 손실이 -50% 발생하였을 때 향후 50%가 오르면 원금이 회복될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50%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100%가 상승해야 한다. 1,000만원에서 -50% 손실이 발생하여 500만원이 된 후 50%가 오르게 되면 750만원, 100%가 올라야 다시 원금 1,000만원이 된다. "-50 = +100" 법칙은 손실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투자에서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전략이 바로 분산투자 그리고 장기투자이다.

**“집단심리, 자기과신, 위험회피”  
세 가지의 투자심리를 이겨내라**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만큼 투자자의 기대심리가 중요하다. 투자심리는 실물경기, 기업실적 등과 같은 펀더멘탈 및 수급 상황과 함께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한다.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리를 잘 통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인 투자 형태를 무리 지어 따라가는 것을 ‘허딩(Herding)’ 현상이라고 한다. 집단 심리가 작용하는 허딩현상이 일반적으로 자산가격의 거품을 만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미국의 주택시장 붕괴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10년 동안 연 10% 이상 오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고 다들 부동산 거래에 뛰어들면서 주택가격의 거품을 만들었다.

이겨내야 할 투자심리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과신’이다. 버블 때문에 번 돈을 자신의 탁월한 주식 투자능력 때문에 벌었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자의 자기과신능력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동원해 과감한 투자를 하게 한다. 그러다 버블이 꺼지는 순간 감당하기 힘든 손실을 입게 된다. 심리학 연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 80%의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투자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투자의 기본원칙인 장기분산투자를 고수하는 것이 투자의 성공 비결이다.

투자에 있어 위기란 ‘위험과 기회’를 합친 말이다. 주식시장에서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나 주변에서 투자실패 경험담을 많이 듣다 보면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하지만 위험회피는 양면성을 가진다. 주식시장이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설 때는 손실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설 때는 투자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투자기간을 장기로 가져간다면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안전자산의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위험회피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쳐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은퇴자금은 장기 계획에 의해 준비되는 만큼 적정한 비중의 위험자산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은행 행복디자인센터 )

### 하나은행, 'Let's Go 브라질 오! 필승 코리아 적금 2014' 출시

하나은행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 성적 결과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Let's go 브라질 오! 필승 코리아 적금 2014' 를 오는 6월 17일까지 판매한다. 동 상품은 한국 대표팀이 16강 진출 시 연 0.1%, 8강 진출 시 연 0.2%, 4강 진출 시 연 0.3%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최고 연 3.8%까지 제공한다.



### 하나대투증권, 자산관리 모바일 웹 '하나대투 HOW' 출시

하나대투증권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웹인 '하나대투 HOW' (Hat of Wisdom : 지혜의 모자)를 출시했다. 동 모바일웹은 로그인 없이 관심 있는 펀드의 수익률 확인, 관련 상품 비교 및 펀드에 대한 분석 및 투자 의견 등 펀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외환은행, '위안화(CNH)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MMDA' 신규 출시

외환은행은 위안화(CNH)로 거래가 가능한 외화정기예금 및 외화MMDA를 신규 출시했다. CNH는 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위안화(CNY)와 별도로 본토 이외 지역에서 거래되는 위안화이며,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금조달 및 운용이 용이하여 대중국 수출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유리하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게 된다.



### 하나생명, (무)행복디자인어린이보험 출시

하나생명은 저렴한 보험료로 어린이·청소년 위험·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무)행복디자인어린이보험'을 출시하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순수보장형 상품은 1만원대 보험료로 각종 질병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행복자금형 상품은 4만원대의 보험료로 100만원씩 총 5회 중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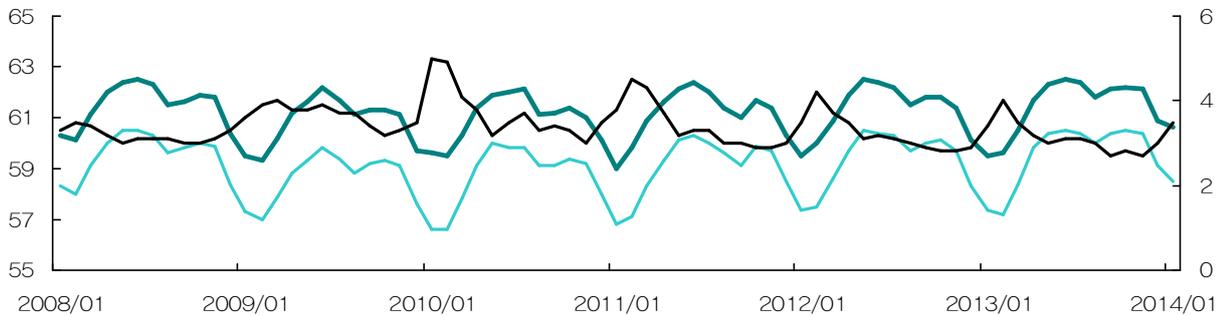
경제 활동

통계청

1. 경제활동 및 고용

연도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전체	15~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60세 이상
2008	61.5	6.5	63.6	75.2	80.1	72.0	37.7	59.5	5.9	59.1	72.9	78.4	70.6	37.2
2009	60.8	6.2	63.1	74.0	79.6	72.1	37.3	58.6	5.4	58.2	71.3	77.7	70.3	36.7
2010	61.0	6.9	63.2	74.6	79.8	72.7	37.0	58.7	6.1	58.2	72.0	77.8	70.9	36.0
2011	61.1	7.6	63.2	74.7	80.1	73.1	37.4	59.1	6.8	58.5	72.2	78.4	71.6	36.5
2012	61.3	7.7	62.8	75.0	80.0	73.8	38.4	59.4	7.0	58.1	72.7	78.3	72.2	37.5
2013	61.5	7.7	61.6	75.4	80.0	74.5	39.1	59.5	6.9	56.8	73.2	78.4	73.1	38.3
2013.12	60.9	8.8	61.4	75.8	80.3	74.3	35.7	59.1	7.5	56.5	73.8	78.9	73.2	35.1
2014.1	60.6	10.5	62.2	75.1	80.1	73.7	34.7	58.5	8.7	57.2	73.2	78.5	72.3	33.3

(단위:%) 경제활동참가율(좌) 고용률(좌) 실업률(우) (단위:%)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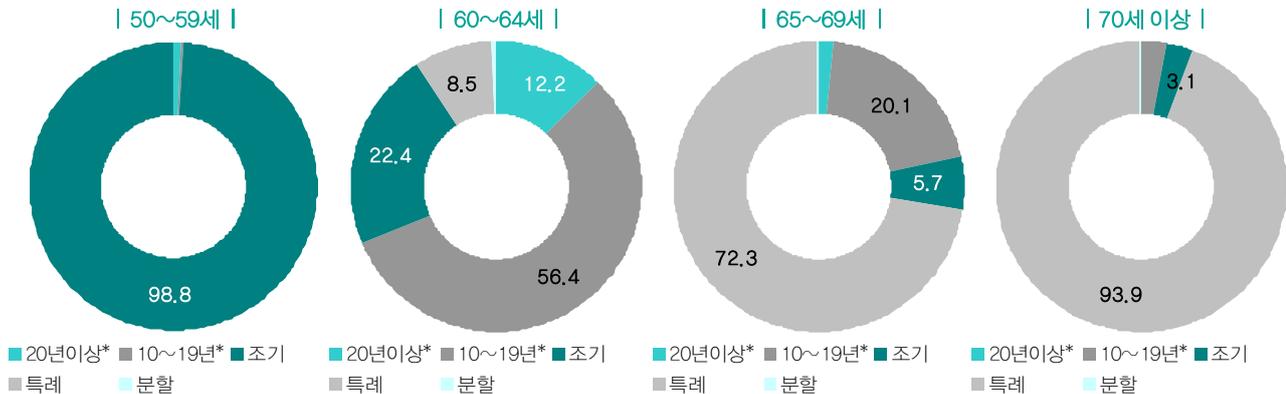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

1. 가입자 현황

(개소, 명)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농어촌			도시
2008	18,335,409	921,597	9,493,444	8,781,483	1,940,510	6,840,973	27,614	32,868
2009	18,623,845	979,861	9,866,681	8,689,861	1,925,023	6,754,838	36,368	40,935
2010	19,228,875	1,031,358	10,414,780	8,674,492	1,951,867	6,722,625	90,222	49,381
2011	19,885,911	1,103,570	10,976,501	8,675,430	1,986,631	6,688,799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96,427	11,464,198	8,568,396	1,956,215	6,612,181	207,890	88,576
2013.11	20,820,089	1,290,247	11,954,290	8,572,954	1,969,813	6,603,141	178,408	114,437
2013.12	20,744,780	1,290,557	11,935,759	8,514,434	1,962,071	6,552,363	177,569	117,018

2. 2013년 12월 연령별 노령 연금 급여수급자 현황



주 : \*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의미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

1. 신규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건,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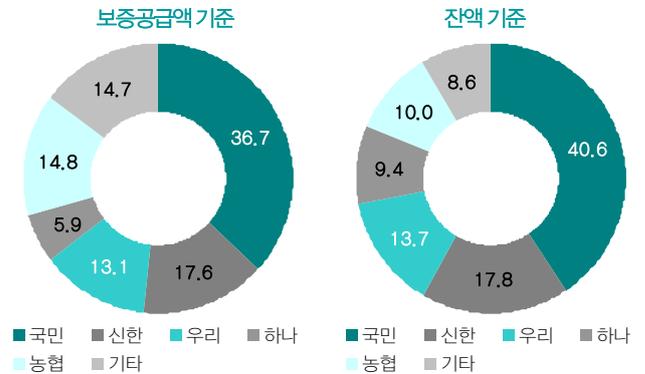
연도	신규가입	보증공급액
2009	1,124	17,474
2010	2,016	30,361
2011	2,936	41,000
2012	5,013	69,006
2013	5,296	62,950
2013.12	400	4,655
2014.1	271	3,322



2. 2014년 1월 금융기관별 주택연금 현황

(억원)

은행	보증공급액	잔액
국민은행	1,218	90,621
신한은행	495	39,631
우리은행	434	30,469
하나은행	196	20,956
농협	492	22,324
기타	488	19,103
합계	3,322	223,105



퇴직연금

노동부, 금융감독원

1. 2013년 12월 기준 가입 근로자수 및 사업자 현황, 계약수(말기준)

(명, 건)

구분	근로자				사업자			
	합계	DB형	DC형	기업형IRP	총계약수	DB형	DC형	기업형IRP
은행	7,870,041	5,304,698	1,422,319	84,750	1,323,926	88,860	103,248	33,838
생명보험	3,156,559	2,851,543	192,357	3,545	237,271	8,337	13,008	1,665
손해보험	1,096,299	999,822	60,312	267	57,778	1,849	1,969	83
증권	2,680,383	2,434,280	136,054	363	119,433	3,298	6,916	112
근로공단	102,461	-	100,169	427	26,427	-	26,213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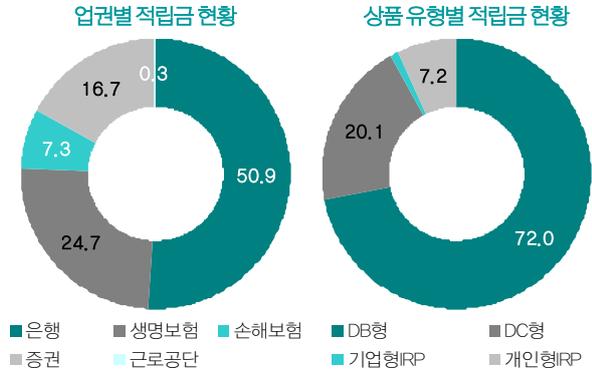
2. 제도유형별 도입사업장 현황

(개소, %)

구분	합계	DB형 단독 도입		DB, DC 동시도입		DC형 단독도입		기업형IRP 도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0	94,455	34,414	36.4	1,590	1.7	34,904	37.0	23,547	24.9
2011	139,151	53,351	38.3	2,876	2.1	56,476	40.6	26,448	19.0
2012	203,488	68,031	33.4	4,615	2.3	101,086	49.7	29,756	14.6
2013.3	215,962	70,868	32.8	4,924	2.3	109,820	50.8	30,350	14.1
2013.6	226,994	73,301	32.3	5,300	2.3	117,808	51.9	30,585	13.5
2013.9	235,716	74,543	31.6	5,549	2.4	123,650	52.5	31,974	13.6
2013.12	257,286	82,355	32.0	6,724	2.6	132,720	51.6	35,505	13.8

### 3. 2013년 12월 업권별 적립금 현황 및 추이

구분	합계	DB형	DC형	기업형RP	개인형RP
합계	842,996	606,573	169,114	6,940	60,368
은행	429,294	268,266	112,454	6,693	41,880
생명보험	207,995	176,772	22,730	196	8,298
손해보험	61,662	54,493	5,141	12	2,017
증권	141,138	107,043	25,916	23	8,157
근로공단	2,906	-	2,873	16	16



### 4. 2013년 12월 적립금 운용현황 및 비중

구분	DB형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예적금	295,285	48.6	104,352	61.7	6,054	87.2	37,463	62.0	443,154	52.6	
	금리확정형보험	219,325	36.2	17,216	10.2	132	1.9	7,477	12.4	244,150	29	
	금리연동형보험	20,972	3.5	5,429	3.2	61	0.9	1,683	2.8	28,144	3.3	
	국채	501	0.1	1,065	0.6	0	0.0	1,417	2.3	2,983	0.4	
	통안증권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정보보증채	0	0.0	0	0.0	0	0.0	0	0.0	0	0.0	
	원리금보장ELS	46,061	7.6	2,020	1.2	0	0.0	1,848	3.1	49,930	5.9	
	RP	9,439	1.6	2,036	1.2	1	0.0	850	1.4	12,326	1.5	
	발행 및 표지어음	0	0.0	137	0.1	0	0.0	39	0.1	177	0.0	
	기타	0	0.0	1	0.0	0	0.0	5	0.0	7	0.0	
원리금보장형 소계	591,582	97.5	132,258	78.2	6,247	90.0	50,783	84.1	780,871	92.6		
실적배당형	실적배당형 보험	161	0.0	1,542	0.9	10	0.1	353	0.6	2,065	0.2	
	직접투자 자산	주식형	904	0.1	66	0.0	0	0.0	40	0.1	1,011	0.1
		혼합형	735	0.1	8,418	5	15	0.2	1,219	2	10,388	1.2
		채권형	3,937	0.6	22,599	13.4	604	8.7	3,274	5.4	30,414	3.6
		재간접	106	0.0	215	0.1	0	0.0	25	0.0	347	0.0
		부동산/실물/특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타	1,392	0.2	0	0.0	0	0.0	0	0.0	1,392	0.2
	집합투자증권 소계	7,236	1.2	32,841	19.4	630	9.1	4,911	8.1	45,617	5.4	
직접투자	435	0.1	64	0.0	0	0.0	308	0.5	807	0.1		
실적배당 소계	7,670	1.3	32,905	19.5	630	9.1	5,219	8.6	46,424	5.5		
대기성 자금	7,321	1.2	3,951	2.3	63	0.9	4,366	7.2	15,701	1.9		
총계	606,573	100.0	169,114	100.0	6,940	100.0	60,368	100.0	842,996	100.0		

### 5. 2013년 12월 금융업권별 적립금액 현황

구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근로복지공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원리금보장형	401,816	93.6	198,008	95.2	60,156	97.6	118,084	83.7	2,808	96.6
실적배당형	18,500	4.3	8,433	4.1	1,492	2.4	17,980	12.7	20	0.7
기타	8,978	2.1	1,555	0.7	15	0.0	5,075	3.6	78	2.7
합계	429,294	100.0	207,996	100.0	61,663	100.0	141,139	100.0	2,906	100.0

주 : 기타는 운용을 위한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발행어음 및 기타 현금성 자산 등)

www.hanaif.re.kr

